

1인가구 60%만 일한다...3명 중 1명 年 1000만원 못 벌어

나 홀로 사는 1인 가구 10가구 중 6가구 만이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연소득은 전체 가구의 3분의 1 수준인 2000만원대 초반으로 나타났다. 특히 1인 가구의 80%는 연소득이 3000만원 미만이었으며 3가구 중 1가구는 1000만원도 벌지 못했다.

1인 가구의 절반은 본인이 직접 노후생활비를 마련했다. 홀로 사는 가구의 의료비 또한 18세 이상 전체 인구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가구 3가구 중 2가구는 1인 가구로 조사됐다.

통계청은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 통계로 보는 1인 가구'를 발표했다. 이는 각종 국가승인통계에서 1인 가구 관련 내용을 발췌하거나 재분류·가공한 통계다.

◆1인 가구 61% 일한다...주당 평균 40.3시간 일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나 홀로 사는 가구는 603만9000가구였으며 이 중 취업한 가구는 367만1000가구(60.8%)를 차지했다. 이 중 남성은 208만1000가구(56.7%)로 전년(57.7%)보다 감소했지만, 여성은 전년(42.3%)보다 증가한 158만9000가구(43.3%)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50~64세가 27.6%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22.6%), 40대(19.5%)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전년과 비교했을 때 40대에 서만 취업 가구가 1만3000가구 감소했으며 나머지 연령층에서는 모두 늘었다. 이 중 50~64세와 65세 이상에

1인 가구 60.8% 취업...주 평균 40.3시간 일해

78.1% 연소득 3000만원 미만...월 143만 소비

1인 가구 3가구 중 2가구 기초생활보장 대상

서 취업 가구가 각각 7만2000가구, 4만6000가구 늘어나며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지난해 취업자 1인 가구의 교육 정도는 대졸 이상이 45.3%로 가장 많았으며 고졸이 36.4%, 중졸 이하가 18.4%를 차지했다. 직업 비중은 전문직·관련 종사자(22.2%), 단순노무종사자(15.7%), 사무종사자(14.9%) 순이었다.

1인 가구 주당 평균 취업 시간은 40.3시간으로 전년보다 0.8시간 감소했다. 주당 평균 시간은 2015년(43.4시간) 이후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42.7시간, 여성은 37.2시간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5.5시간 길었다.

1인 가구 취업자 57.1%는 고용의 불안감이 컸다. 다만 19세 이상 전체 취업자의 고용 불안감(59.1%)보다는 낮았다.

◆10가구 중 8가구 3000만원 못 벌어...월평균 143만원 소비

2018년 기준 1인 가구의 연 소득은 2116만원으로 전년보다 2.6% 증가했으나 여전히 전체 가구(5828만원)의 36.3%에 머물렀다. 근로소득은 1142만원으로 전체 소득의 54.0%를 차지

했으며 사업소득(372만원), 공적 이전소득(319만원), 사적 이전소득(150만원), 재산소득(134만원)이 뒤따랐다.

전년과 비교하면 사업소득과 재산소득은 각각 20만원(-5.1%)과 3만원(-2.2%) 쪼그라들었지만, 나머지 소득은 모두 증가했다. 1인 가구의 공적·사적 이전소득 비중은 22.2%로 전체 가구(8.4%) 대비 2.6배 높았다.

1인 가구 10가구 중 8가구(78.1%)는 연 소득이 3000만원 미만이었다. 이 가운데 33.9%는 1년에 1000만원도 벌지 못했다. 이는 전체 가구(8.6%)보다 4배 많은 수치다. 1000만~3000만원 미만은 44.2%, 3000만~5000만원 미만은 14.4%, 5000만~7000만원 미만은 4.8%, 7000만~1억원 미만은 1.9%였다. 1억원 이상 소득 비중은 0.8%로 100가구 중 1가구꼴이었다.

지난해 기준 1인 가구 월평균 소비 지출은 142만6000원으로 전체 가구(245만7000원) 대비 58.0%에 머물렀다. 주거·수도·광열(17.9%), 음식·숙박(16.0%), 교통(13.1%)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1인 가구 자산은 약 1억 6000만원으로 전체 가구(4조3000만원)의 37.2% 수준이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69% '나 홀로 가구'...노후는 직접 준비

지난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가구 128만1759 가구 중 1인 가구는 87만9270 가구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 3가구 중 2가구 이상이 1인 가구인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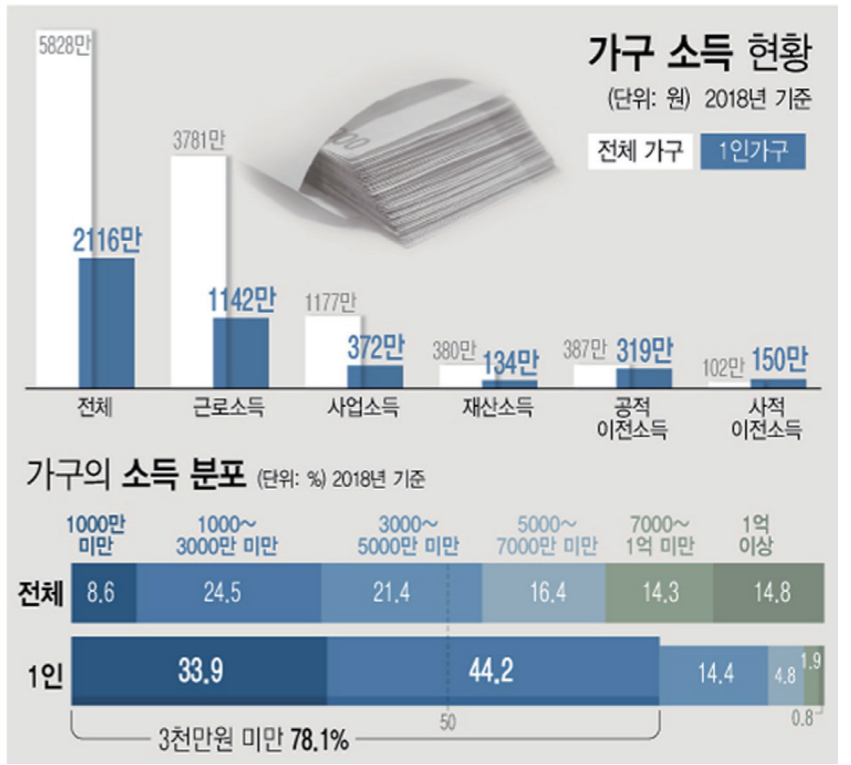
전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은 2014년 이후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68.6%로 10년 전보다 6.5%포인트(p) 늘었다.

1인 가구 연간 의료비는 18세 이상 인구 의료비(64만원)보다 약 1.4배 많은 88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2015년 이후 18세 이상 전체 인구의 1인 가구 의료비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연간 의료비 간 격차도 2015년(18만2000원), 2016년(24만3000원), 2017년(24만4000원) 등 매년 커졌다.

아울러 1인 가구 2가구 중 1가구(51.6%)는 본인이 노후 생활비를 직접 마련했다. 2009년에는 39.7%만 본인이 부담했으나 2011년 43.2%, 2015년 47.2%, 2017년 49.3% 등으로 해마다 본인 부담 비중이 늘었다. 정부 및 사회단체도 27.7%로 10년 전(20.1%)보다 늘었으나 자녀·친척 지원은 2009년 40.2%에서 지난해 20.8%로 크게 줄었다.

지난해 간편식(즉석 섭취 식품) 구입 주기는 1인 가구(32.0%)와 전체 가구(29.7%) 모두 주 1회가 가장 많았다. 이어 2주 1회, 월 1회 순이 뒤따랐다. 1인 가구의 19.8%는 스마트폰 의존 위험군으로 전체 인구(20.0%)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1인가구 30% 여가활동비 월 5만



월 미만...“경제적 부담 커”

지난해 1인 가구 10가구 중 3가구는 월평균 여가활동 비용이 5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인구는 월평균 여가활동 비용 15만원 이상이 41.5%인 반면 1인 가구는 29.8%가 월 평균 5만원 미만 쓰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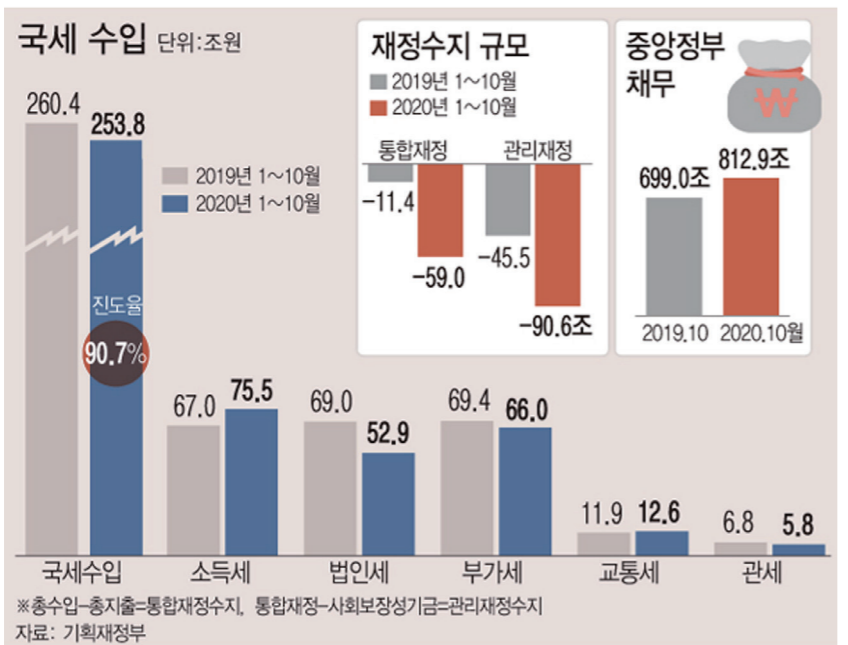
1인 가구의 월평균 여가활동 비용을 살펴보면 3만원 미만은 18.3%를 차지했으며 3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은 11.5%를 보였다. 5만원 이상 7만원은 15.9%, 7만원 이상 9만원은 2.5%, 9만원 이상 15만원 이하는 18.2%였다. 1인 가구의 33.5%는 월 15만원 이상을 여가 활동비로 썼다.

그럼에도 1인 가구의 27.1%만 여가생활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보통은 45.1%였으며 불만족은 27.8%로 '만족한다'는 응답보다 조금 많았다. 불만족의 원인은 경제적 부담이 52.5%를 차지했다. 이어 건강·체력 부족(22.2%), 시간 부족(14.0%), 취미·동반자 부재(8.4%), 시설·정보 부족(1.8%) 등도 뒤를 이었다.

1인 가구의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전년보다 0.4시간 늘어난 4.2시간으로 전체 인구 평균 여가시간(3.5시간)의 1.2배 수준이었다. 1인 가구 10가구 중 7가구는 주말에 주로 TV 시청이나 휴식을 하며 여가시간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10월까지 세수 6.7조 감소...나랏빚 10개월 새 114조 ↑

10월 세수 6.8조 증가...누계는 여전히 줄어



지난 10월 세금이 지난해보다 더 걸렸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에 1월부터 10월까지 누계 세수는 전년보다 6조원 넘게 감소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 지원을 위한 4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등으로 총지출이 증가하면서 국가채무는 올해만 100조 넘게 증가했다. 1~10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올해 들어 매달 '역대 최대'를 찍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올해 10월 국세수입은 39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조8000억원 증가했다. 7~9월에 이어 10월까지 3달 연속 세수가 1년 전보다 더 걸렸다.

10월 소득세는 세정지원에 따라 이월된 세금 납부와 명목임금 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4조1000억원이나 늘어난 10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근로자 명목임금은 지난해 9월 기준 375만원에서 올해 382만원으로 1.9%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18조3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9000억원 늘었다. 3분기 민간소비 및 수입이 증가하면서 3분기 소매판매액지수(2015=100)

는 113.7로 지난해 3분기(111.7)보다 1.8% 증가했다. 수입액도 전년(387억 4000만 달러)보다 1.1% 늘어난 391억 7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총합부동산세, 증권거래세 등 기타 국세는 4조원으로 1년 전보다 1조 3000억원 증가했다. 교통세와 관세는 전년보다 2000억원씩 늘어나 각각 1조3000억원, 9000억원 더 걸렸다. 반면 법인세는 중간예납 분납액 감소 등으로 4000억원 줄어 2조8000억원 걸리는 데 그쳤다.

10월 세수는 늘었지만 1~10월 누계 세수는 253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조7000억원 감소했다. 이 기간 잠정세수진도율은 90.7%(4차 추경 기준)로 지난해 88.7%보다 2.0%포인트(p) 증가했다.

정부가 1년간 걷어야 할 세금 기준으로 10월까지 이 비율만큼 걷혔다는 의미다. 최근 5년(2015~2019년) 동안 평균 진도율 89.0%보다도 1.7%p 높았다.

1~10월 누계 법인세는 52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6조1000억원 줄었다. 기업의 영업실적 부진이 지속되면서 영향을 받았다. 부가가치세도 3조 3000억원 줄은 66조원이 걸렸다. 관세는 1조원 쪼그라들며 5조8000억원

이 걸렸다.

반면 누계 소득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5000억원 많은 75조5000억원 걸렸다. 상용직 근로자가 소폭 늘면서 근로소득세가 증가했으며, 주택 거래 등의 증가로 양도소득세도 늘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교통세도 7000억원 증가한 12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타 국세는 33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2000억원 증가했다.

과태료, 변상금, 국고보조금 반환 등 세외수입은 10월 2조1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000억원 늘었다. 관유물 대여료 등 재산수입, 과태료 등 경상이전수입 증가 영향이 컸다. 1~10월 누계로는 21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5000억원 더 걸렸다.

사회보장기여금, 용자 및 전대차관원금 회수 증가 등으로 10월 기금수입은 전년보다 1조1000억원 증가한 14조원으로 나타났다. 1~10월 누계로는 134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조 6000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합친 10월 총수입은 55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5000억원 증가했다. 1~10월 누계 총수입도 전월보다 3조3000억원 늘어난 409조 5000억원이었다.

10월 총지출은 전년보다 2조1000억원 증가한 33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이동통신요금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등 4차 추경 사업으로 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1~10월 누계로는 468조 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0조9000억원 증가했다.

10월 재정수지는 4차 추경 사업 집행 등 총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증가 등으로 총수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흑자를 기록했다. 10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21조5000억원 흑자를 보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도 17조 9000억원 흑자였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꼽힌다.

'수도권 셋다운' 택시는 빈차로 빙빙...“사납금 어찌나”

택시기사들 “손님 없어 사납금도 못 채운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연일 600명을 넘어지면서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저녁 시간대 유동인구가 눈에 띄게 줄어들면서 택시기사들 사이에서는 생계 우려 등으로 인한 탄식이 나오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8일 오전 0시부터 오는 28일 자정까지 3주 동안 수도권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상향하는 등 '수도권 셋다운'을 본격화하고,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2단계를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됨에 따라 2단계 유통시설에 이어 식당·카페를 제외한 노래방 등 다른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 중 실내체육시설 등

에 집합금지 내려진다. 이와 함께 이번에는 학원의 문까지 닫게 된다.

이 외에도 마트, 영화관, 독서실 등 다중이용시설들은 모두 오후 9시에 영업을 중단해야 하고, 식당의 경우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식사가 가능하지만 그 이후로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야간시간대 손님들을 주요 대상으로 영업해왔던 업종에서 탄식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특히 택시기사들은 “9시 이후 영업 중단으로 매일 내야 하는 사납금도 못 채우게 생겼다”고 호소하고 있다.

지난 6일 자정께 서울 강남구에서 만난 택시기사 A씨는 “유형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연말이 대목인데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큰일이라고 한다”며 “유형업종 영업을 중단되면서



택시기사들도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했다.

A씨는 “주말 저녁이 대목인데 코로나19 때문에 택시기사들도 다 죽게 생겼다”며 “평소에 운전을 할 때 웬만하면 위험을 안 하는데, 오늘은 불법 유턴을 해서 손님을 태웠다. 1시간30분 동안 빈 차로 돌아다니다가 겨우 태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사에 내야 하는 사납금이 하루에 18만5000원인데 오늘 8만 7000원밖에 못 채웠다”며 “이제 평일이든 금요일이든 오후 9시만 넘어가면 사람들이 없다”고 했다.

신봉우기자

운수업 매출 5년 연속 증가...무역갈등에 항공만 '뒷걸음'

항공운송만 0.7% 감소...3년 만에 줄어

지난해 온라인쇼핑 시장 성장에 따른 택배 물동량 증가와 해외배송 등의 영향으로 운수업 매출액이 5년 연속 증가했다. 다만 국제사회 무역 갈등 영향으로 항공운송업에서만 매출 감소가 나타났다.

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운수업 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운수업 매출액은 152조원으로 전년(146조9000억원)보다 3.5% 증가했다. 운수업 매출액은 2015년부터 2년 연속 감소하다가 2015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선 뒤 5년 연속 늘고 있다.

업종별로는 철도여객, 버스, 택시 등 육상운송업 매출액이 67조 8000억원으로 3.6% 올랐고, 수상여객 및 화물을 포함하는 수상운송업도 29조2000억원으로 3.1% 상승했

다. 창고·운송관련 서비스업은 30조2000억원으로 7.1%의 비교적 높은 매출 신장 폭을 기록했다.

반면 항공운송업은 전년도 25조원에서 24조8000억원으로 0.7% 감소했다. 2016년 이후 3년 만에 매출이 줄면서 관련 업종 중 유일하게 뒷걸음쳤다.

통계청은 “택배업과 외항화물운송업 등의 증가로 전체 매출은 늘었지만 국제사회 무역 갈등 영향으로 항공화물운송 실적이 부진해 항공운송업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운수업 매출액 증가와 함께 영업비용도 139조5000억원으로 3.7% 증가했다.

생활물류 등 물동량 증가에 따른 물류시설 확충과 인건비 상승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운수업 기업체 수는 39만3000개로 전년 대비 8800개(2.3%)가 늘었고, 종사자 수도 115만4000명으로 1년 사이 1만9000명(1.7%) 증가했다.

기업체수는 주로 육상운송업으로 1.5t 이하 택배용 차량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개별·용달화물차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종사자 수는 육상, 수상, 항공운송업에선 모두 늘었지만,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종사자는 3.3% 줄었다.

통계청은 운수업 가운데 여객을 제외한 물류 관련 25개 업종과 운수업 외 물류 관련 서비스업을 8개를 포함한 33개 업종을 따로 분리해 집계했다.

물류산업 기업체 수는 21만7000개, 종사자 수는 59만6000명, 매출액은 92조4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오유나기자